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지역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제10호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지역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제10호 2022년 7월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0호  
2022년 7월

# 지역간 삶의 질 격차: 문화·보건·보육

하수정, 김은란, 이차희, 이종표, 심혜민



# Contents



## 02 요약 및 시사점



## 03 지역 간 문화 격차

- 03 지난 10여년 간 문화기반시설은 양적으로 지속 증가
- 04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양적 격차는 미미
- 07 도서관 접근성은 지역 간 격차 뚜렷
- 08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수도권에 집중
- 09 공연 건수·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우세



## 11 지역 간 보건 격차

- 11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 13 지역별 기대수명 격차 존재
- 14 의료인력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미미
- 16 의료 접근성 지역 간 격차 뚜렷
- 17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 18 지역 간 복지 격차

- 18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기관 취업 비중은 OECD 평균의 1/3 수준
- 19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 추세이나 지역 간 격차 존재
- 20 교원 1인당 영유아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와 수도권
- 22 보육기관 접근성도 지역 간 격차 뚜렷

## 24 부록



### 요약

#### ■ 지역 간 문화 격차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미미)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수도권 시설 비중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나,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 중심으로 분포
-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매출액은 수도권에 압도적)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 건수 및 매출액도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음

#### ■ 지역 간 보건 격차

- (의료자원의 지역 간 양적 격차 미미) 의료인력 수는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지 않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서울에 편중된 반면, 요양병원은 서울이 가장 적음
- (의료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서울이 압도적으로 접근성이 높으며, 경남, 강원, 경북 등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응급환자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 극심) 평균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 ■ 지역 간 보육 격차

- (국·공립 보육기관의 지역 간 격차 존재)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음
- (국·공립 보육기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뚜렷) 국·공립 유치원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수는 제주도 및 수도권에 높고, 비수도권 및 도 지역에서 낮으며,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높고, 강원이 가장 낮음

### 시사점

- 인구, 소득, 고용 외에도 문화·보건·보육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발전정책을 고도화할 필요
- 문화·보건·보육의 지역 간 격차는 양적으로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접근성, 생애주기 등 다각적 분석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균형발전정책 필요
- 수요가 높은 문화기반시설 수(도서관, 미술관) 및 문화행사와 관련된 지표(전문예술법인·단체, 공연 건수, 매출액 등)의 수도권 쏠림이 뚜렷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 요구
-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매우 뚜렷하며, 이와 관련된 응급환자 사망률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 시급
- 영유아 보육기관의 접근성은 여전히 서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므로, 지방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모색 필요

## I 지역 간 문화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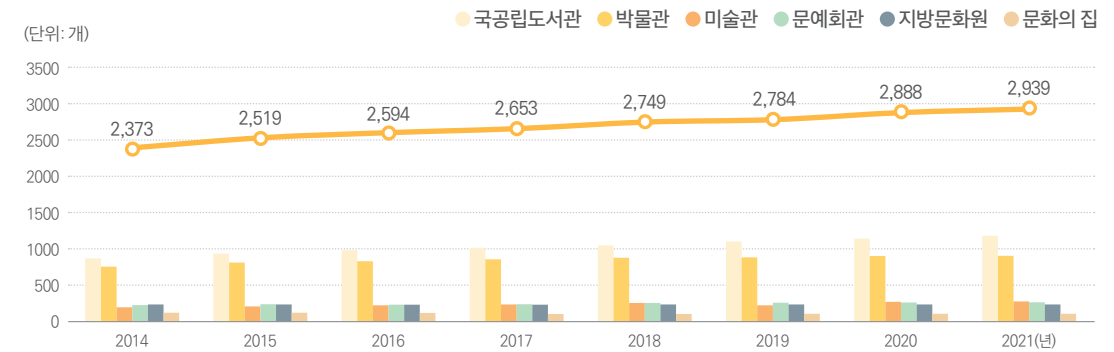
### ○ 지난 10여년 간 문화기반시설은 양적으로 지속 증가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전체 문화기반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술관, 국·공립도서관 등은 증가율이 4~5% 수준으로 높은 반면, 문화의 집은 오히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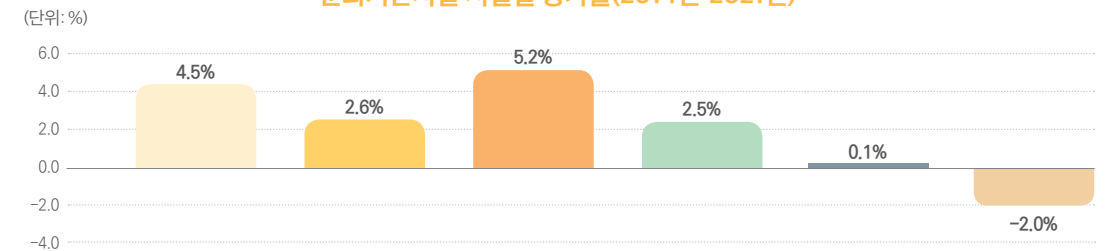
####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수는 2014년 2,373개에서 2021년 2,93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1% 수준
- 국·공립도서관과 박물관이 전체 중 약 70%를 차지하나, 증가율은 미술관이 5.2%, 국·공립도서관이 4.5%로 높은 반면, 문화의 집 -2.0%, 지방문화원 0.1%로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였음

문화기반시설 수(2014년-2021년)



문화기반시설 시설별 증가율(2014년-2021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용어설명 Tip

- ▶ 우리나라 문화기반 시설의 종류는 국공립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으로 구분
- ▶ 문화의 집은 국민 문화 복지 증진 및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 극복 등을 위해 지역별로 조성된 문화센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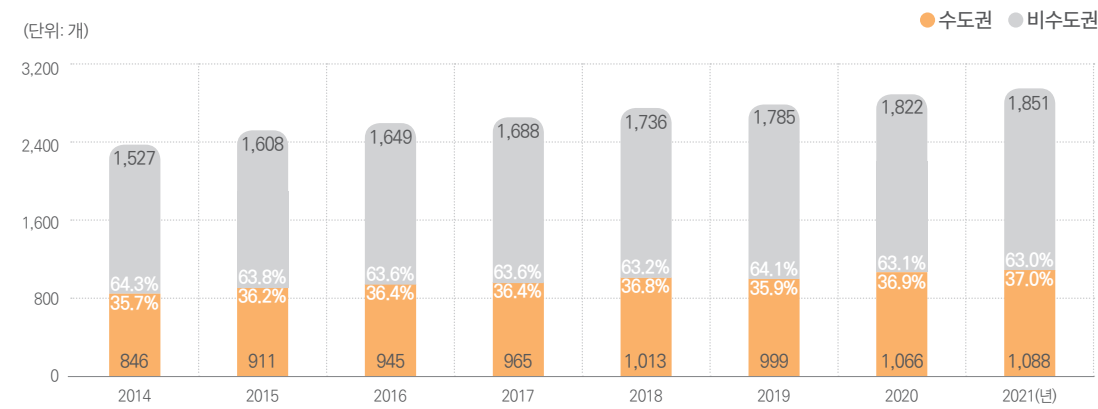
## ○ 문화기반시설의 지역 간 양적 격차는 미미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수) 수도권 비중은 35~37%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인구 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의 격차는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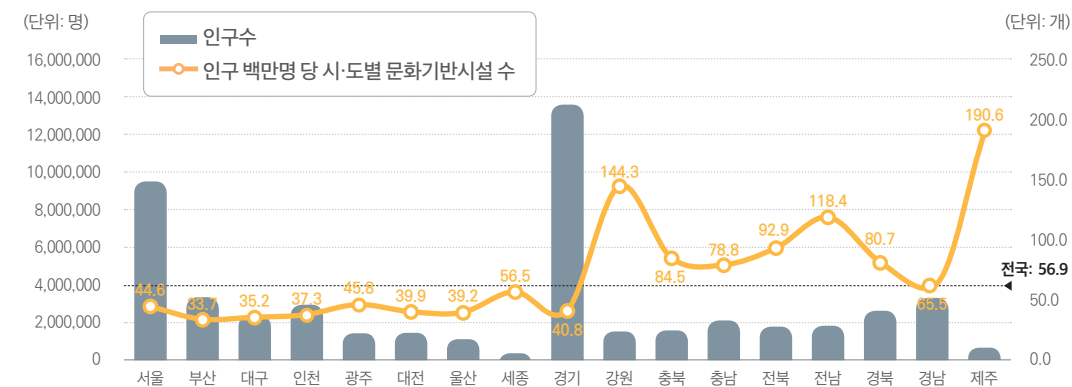
###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수 비교

- 2014년 수도권 문화기반시설 비중은 35.7%였으며, 2021년에는 37.0%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인구 백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제주도(190.6개), 강원도(144.3개), 전남(118.4개) 등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남

수도권·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수(2014-2021년)



인구 백만명 당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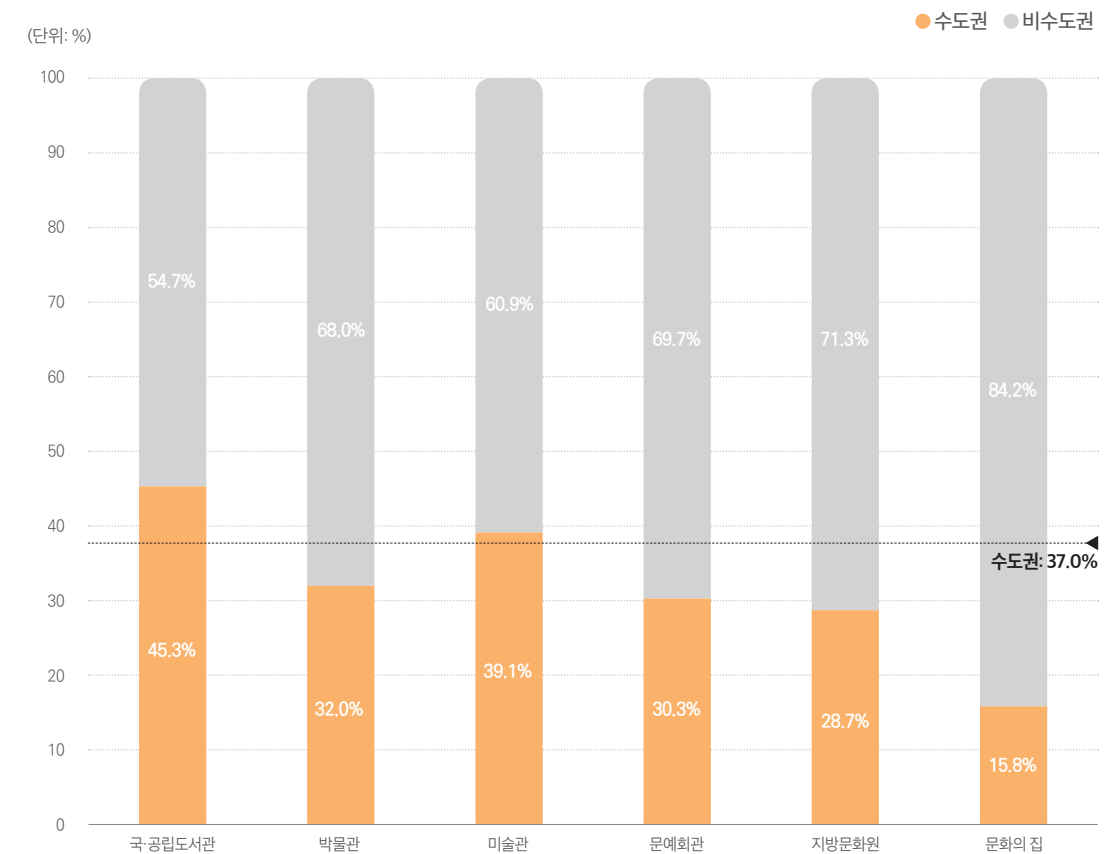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수도권·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종류) 다만, 종류별 분포를 보면, 미술관, 도서관은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문화의 집은 비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많이 위치

### 수도권·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비중

- 문화기반시설 종류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미술관(39.1%), 국·공립도서관(45.3%)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으며, 비수도권에 문화의 집(84.2%)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음

수도권·비수도권 문화기반시설 종류별 비중(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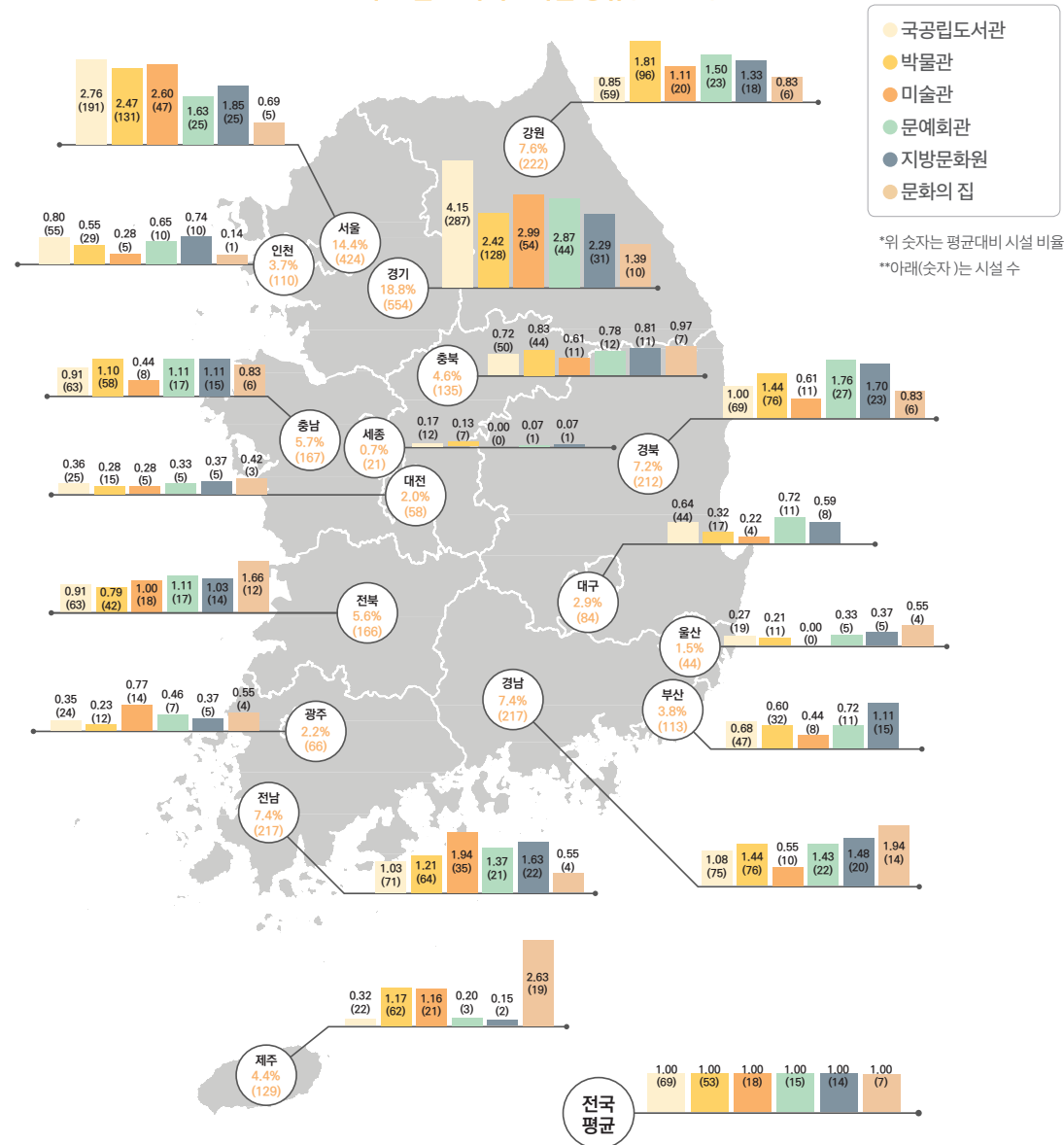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종류) 미술관, 도서관은 경기와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문화의 집은 제주와 경남에 많이 위치

###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종류

- 문화기반시설 중 미술관, 도서관은 경기(54개, 287개)가 가장 많으며, 서울(47개, 191개)이 그 다음을 차지
- 반면, 문화의 집은 제주(19개), 경남(14개), 전북(12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종류(2021년)



\* (주) 각 문화기반시설의 평균을 1로 보고 그래프 작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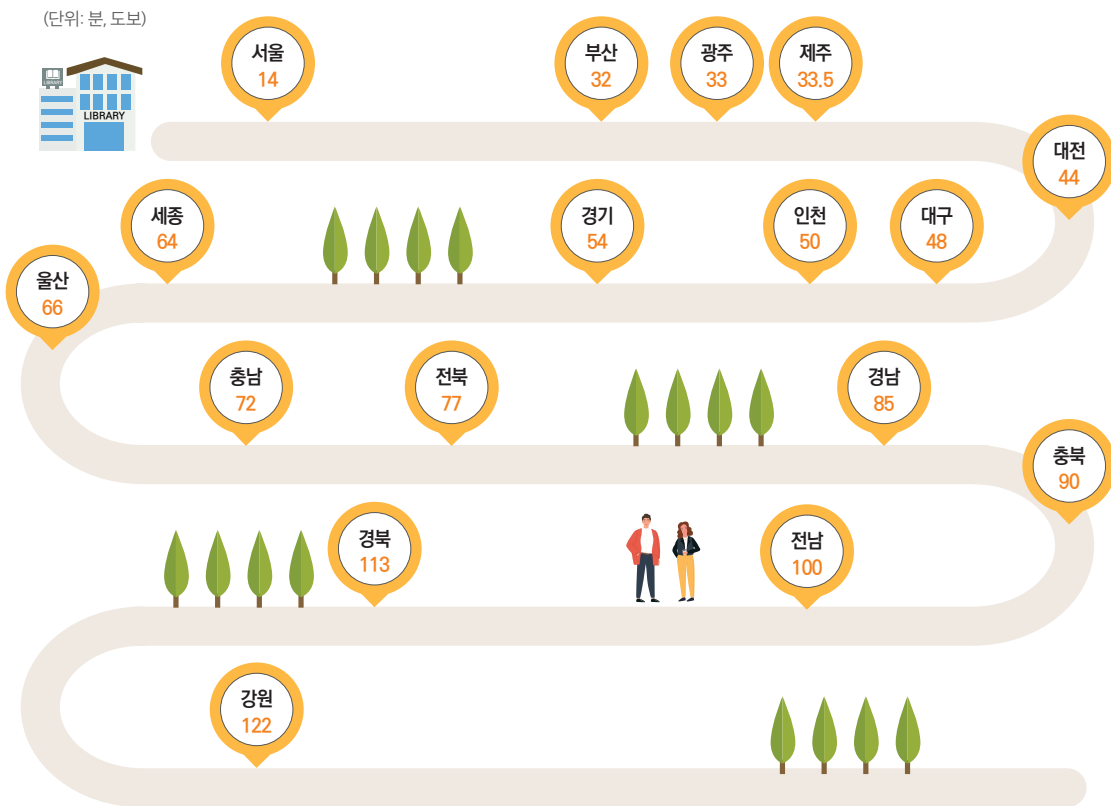
### 도서관 접근성은 지역 간 격차 뚜렷

대표적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나며,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 시·도별 도서관 접근성

- 도서관 접근성은 9개 특별시·광역시가 10위권 내 모두 위치하는 등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 도서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04km, 도보 14분)로 2위 부산(2.43km, 도보 32분)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반면,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강원(9.15km, 도보 122분), 경북(8.50km, 113분), 전남(7.49km, 100분) 등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도서관 접근성(2020년)



\* (주) 1. 접근성의 경우 500x500 격자 중심점에서 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도로 이동거리로 산정됨  
 2. 도보 750m당 도보 10분으로 산출  
 3. 도서관은 공공·민간도서관의 총합으로 산출

\*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 「국토통계지도 국토지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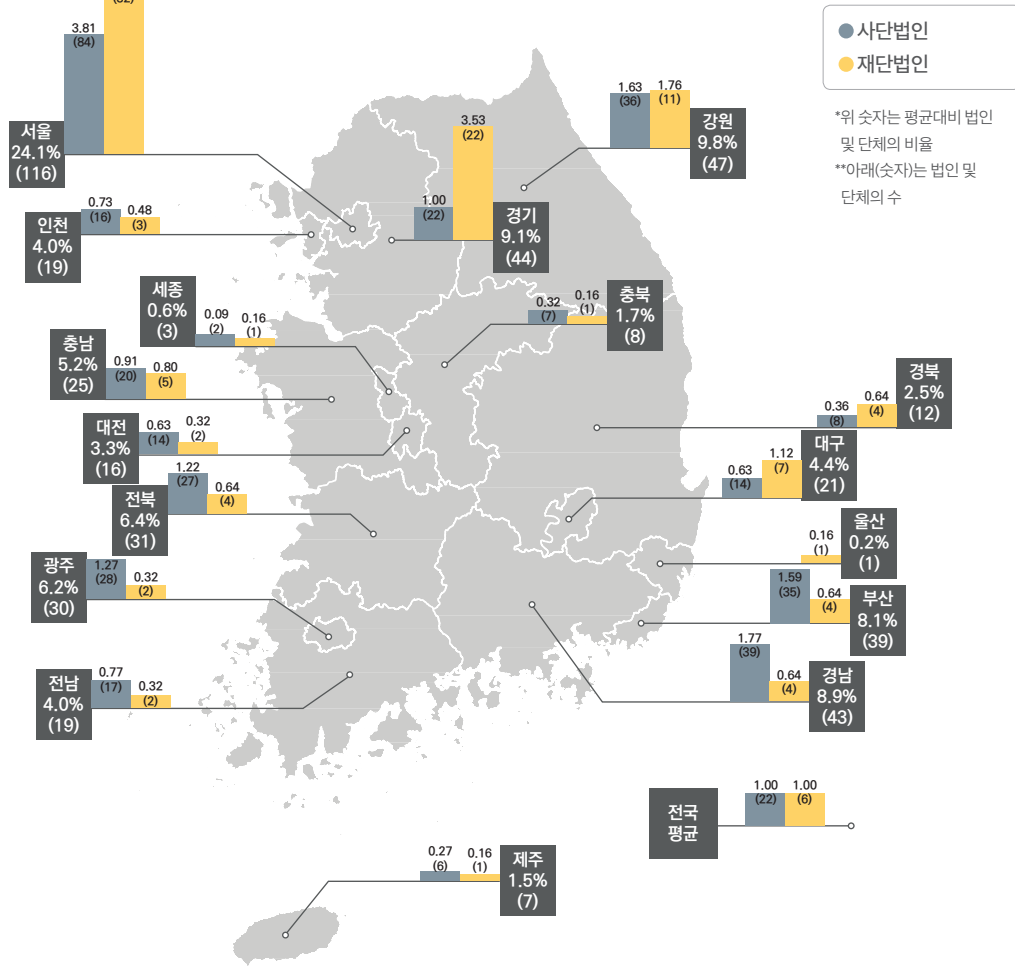
## ○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수도권에 집중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서울에 24.1%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 경남, 부산에도 다수 분포

###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수도권(37.0%)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으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24.1%)·경기(9.1%)에 두드러지게 많이 분포
- 시·도별로는 서울(116개), 강원(47개), 경기(44개), 경남(43개), 부산(39개)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다른 지표에서 하위에 위치한 강원은 강세가 두드러짐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운영단체 현황(2021년)



\* (주) 1. 운영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임의단체로 구분함  
2. 각 운영단체의 평균을 1로 보고 그래프 작성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문예술법인·단체 백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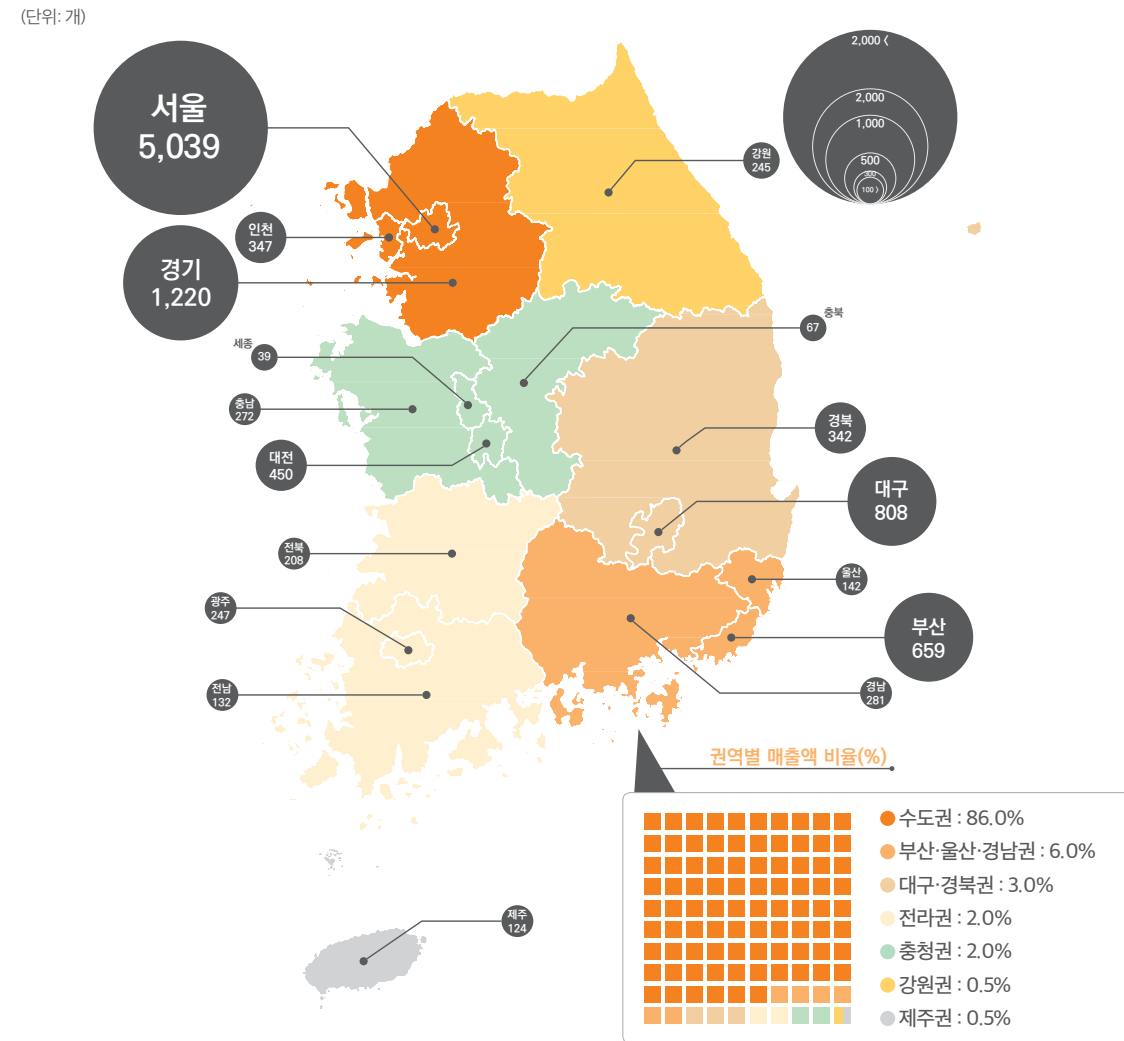
## ○ 공연 건수·매출액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우세

(공연 건수 및 매출액)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도권 집중도는 공연 건수보다 매출액에서 높게 나타남

###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

- 공연 건수는 수도권(62.0%)이 비수도권(38.0%)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서울(47.0%)이 압도적임
-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전체 공연 건수의 6.0%로 두드러지는 반면, 나머지 지역은 3.0% 이하로 나타남
- 매출액은 수도권이 86.0%를 차지하며, 공연 건수와 비교하더라도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 뚜렷이 나타남

시·도별 공연 건수 및 매출액 현황(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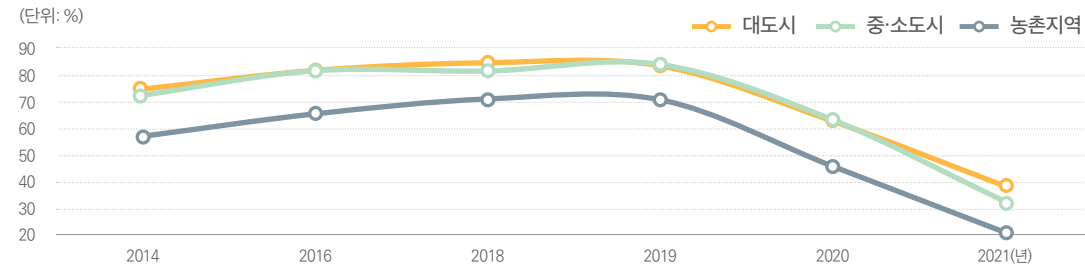
\* (자료) KOPIS(2021), 「공연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농촌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문화예술 행사를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관람하는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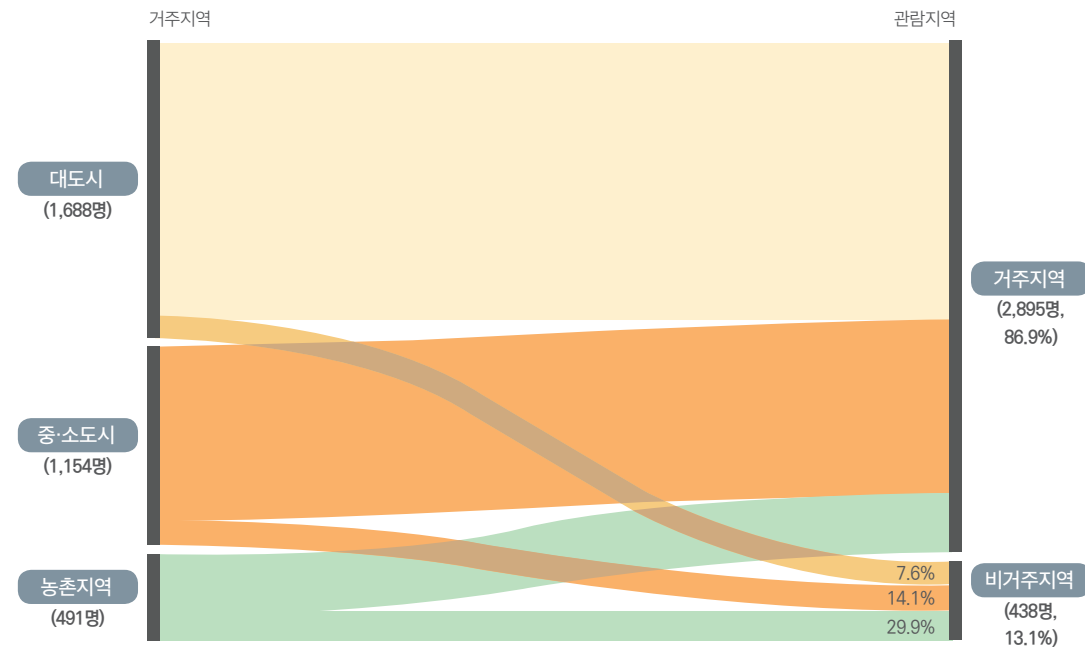
### 지역별 관람율 추이 및 관람지역

- 코로나 19 영향 이전(2019년)까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모두 관람율이 증가 추세
- 전체 관람지역에서 거주지역 관람은 86.9%, 비거주지역 관람은 13.1%로 나타났으며, 이 중 비거주지역에서의 관람은 대도시 7.6%, 중소도시 14.1%, 농촌지역은 29.9%로 나타냄

#### 지역별 관람율 추이



#### 지역별 관람지역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II 지역 간 보건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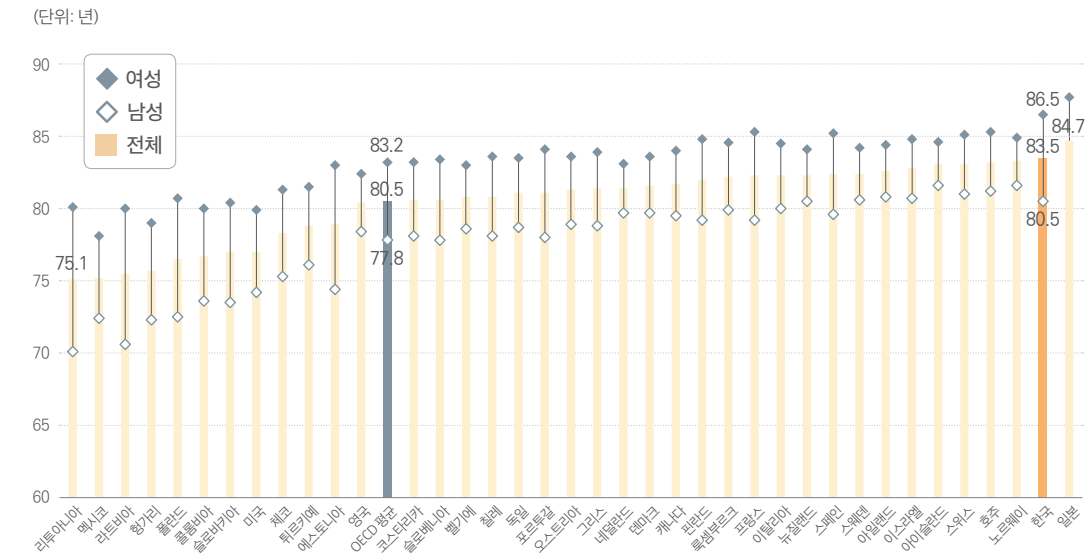
###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

(국제 순위) 2021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80.5년)보다 3년 긴 것으로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

- 2021년 OECD 건강통계(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OECD 회원국 평균 기대수명은 80.5년이며,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84.7년), 가장 짧은 나라는 리투아니아(75.1년)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83.5년으로 OECD 평균보다 3년 길고, 일본의 이어 상위 2번째에 속함

#### OECD 회원국의 기대수명(2021년)



\* (자료) OECD(2022), 「Health Statistics Life Expectancy」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용어설명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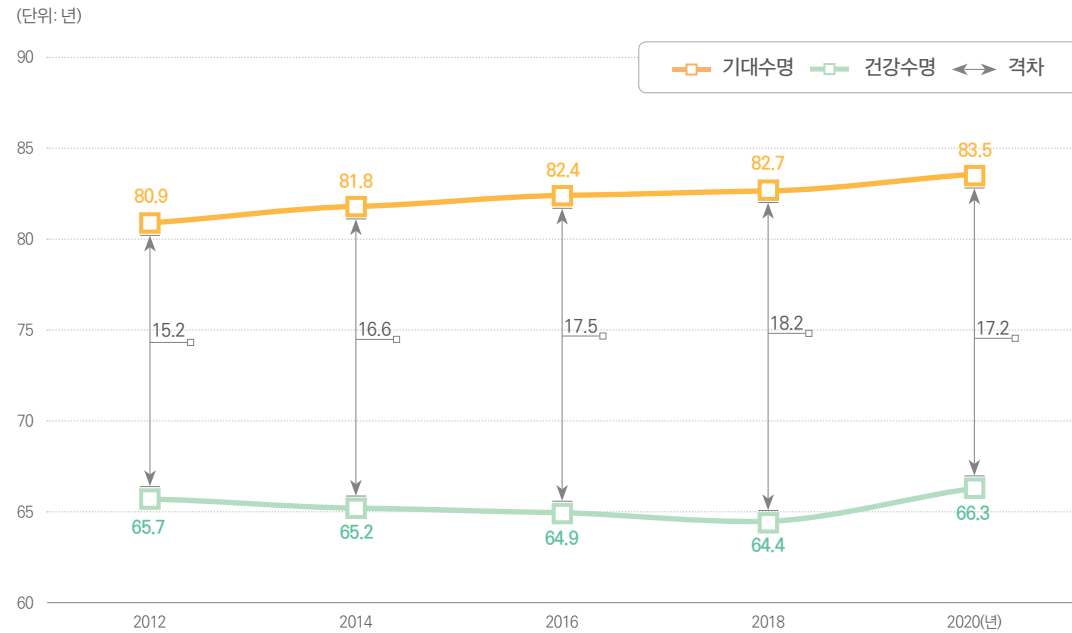
기대수명이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를 뜻하며, 평균수명 또는 0세의 기대여명이라고도 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우리나라 2020년 기준 기대수명(83.5년)과 건강수명(66.3년)은 201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도 15.2년에서 17.2년으로 증가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0년 83.5년으로 2012년 대비 2.6년 증가하였고, 건강수명은 2020년 66.3년으로 2012년 대비 0.6년 증가함
- 2012년에서 2020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15.2년에서 17.2년으로 2년 증가하였는데, 이는 건강수명에 비해 기대수명이 더 빨리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추이 비교(2012-2020년)



\* (자료) 통계청(2021), 「생명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용어설명 Tip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이란 기대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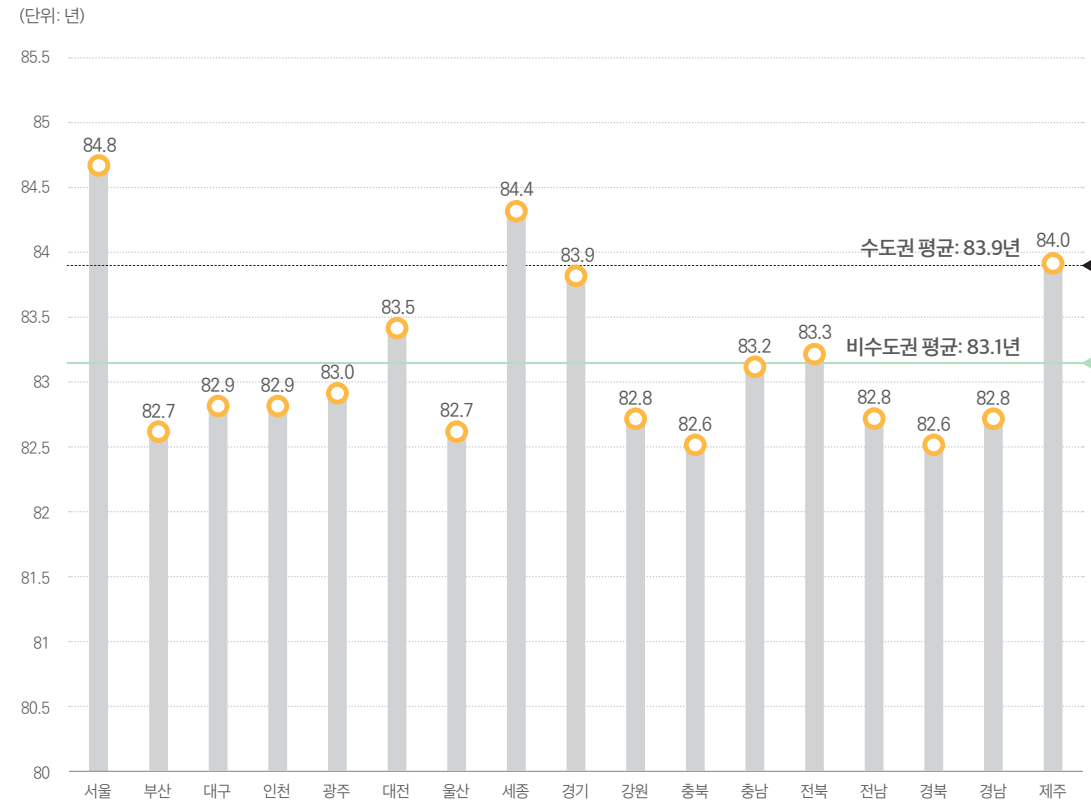
##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존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대수명 격차는 0.8년, 서울과 경북·충북 기대수명 격차는 1.8년

###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

- 수도권의 기대수명은 83.9년으로 비수도권(83.1년)보다 0.8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기대수명은 서울(84.8년), 세종(84.4년) 등 순으로 높고, 경북·충북(82.6년), 부산·울산(82.7년)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남

지역 간 기대수명 격차(2020년)



\* (주) 시·도별 기대수명은 3년 주기로 작성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균은 시·도별 값으로 산출

\* (자료) 통계청(2020), 「생명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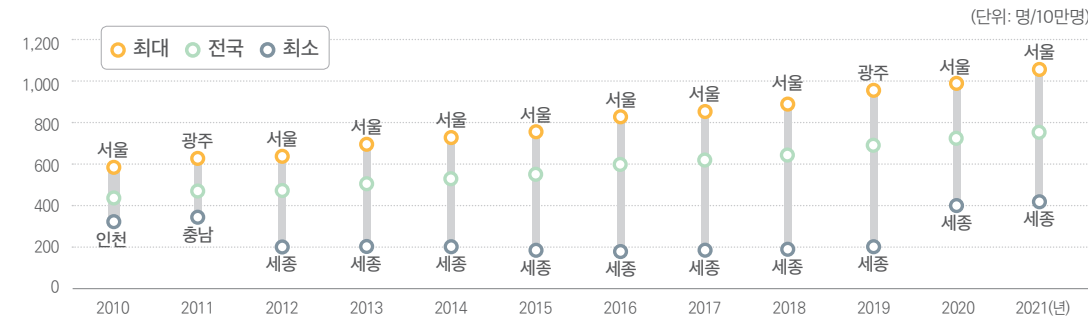
## ○ 의료인력 수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미미

(의료인력 수)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 광주, 대구 순으로 높으며,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낮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뚜렷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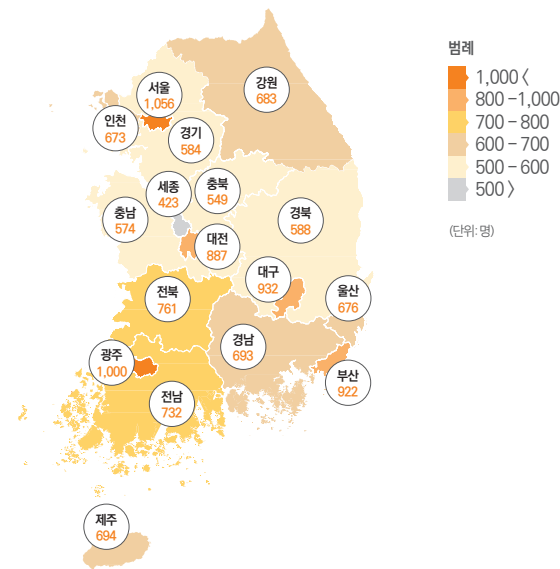
###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

- 2010-2021년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상당 기간 서울이 가장 많고 세종이 가장 적었음
- 2021년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는 서울(1,056명), 광주(1,000명), 대구(932명) 순으로 높게, 세종(423명), 충북(549명), 충남(574명)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뚜렷하지 않으며, 수도권 내 서울과 경기의 격차, 비수도권 내 광주와 세종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전라권이 강세를 보임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 격차 추이(2010-2021년)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의료인력 수(2021년)



\* (주) 의료인력의 경우 의사, 간호사, 약사의 총합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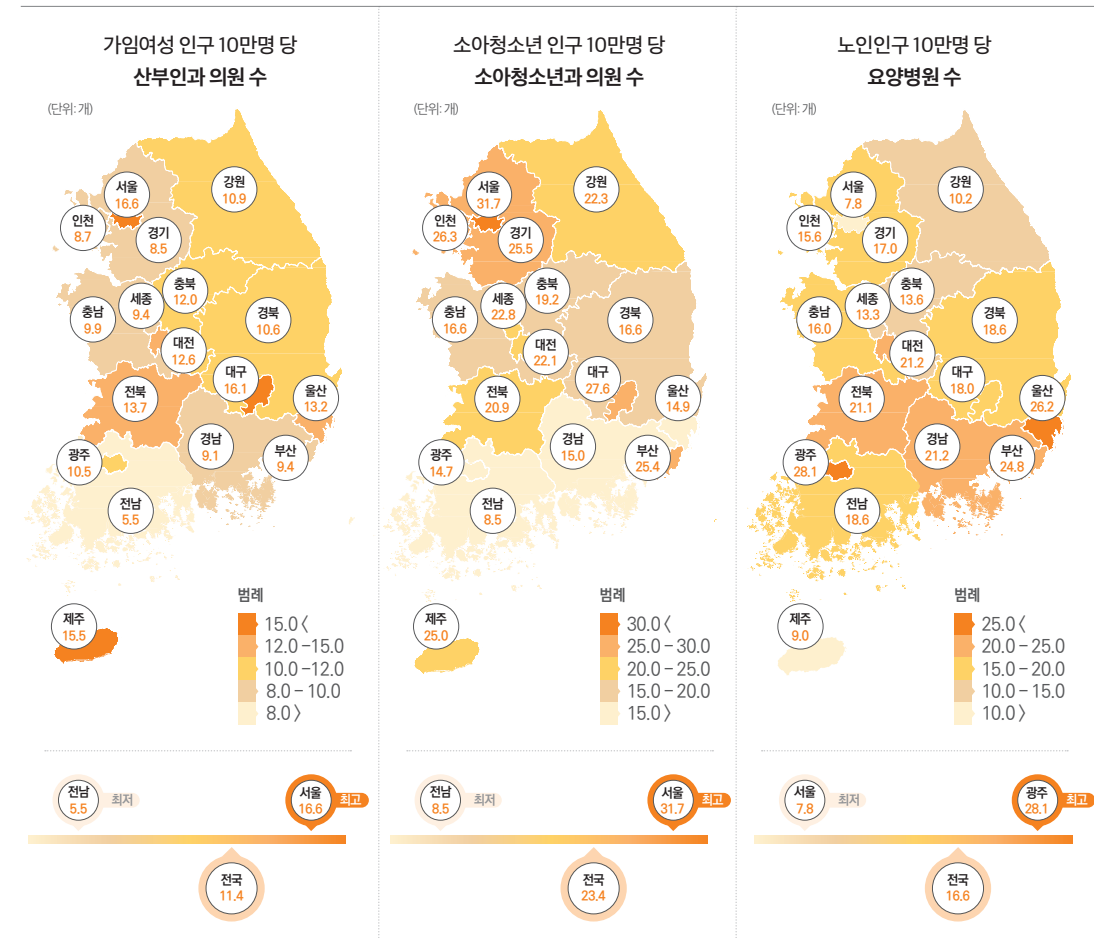
\* (자료) 보건복지부(2021), 「의료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에 많이 편중되어 있으나, 요양병원 수는 서울이 가장 적게 나타남

### 인구 10만명 당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수

- (임신·출산기) 가임여성 인구 10만명 당 산부인과 의원 수는 서울(16.6개)이 가장 많고, 전남(5.5개)이 가장 적음
- (소아청소년기) 소아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서울(31.7개)이 가장 많고, 전남(8.5개)이 가장 적음
- (노년기) 노인 인구 10만명 당 요양병원 수는 광주(28.1개)에 가장 많고, 서울(7.8개)이 가장 낮게 나타남

인구 10만명 당 생애주기별 의료자원 수(2021년)



\* (주) 1. 가임여성의 경우 15~49세 여성인구로 산정  
2. 소아청소년의 경우 0~20세 인구로 산정  
3. 노인인구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로 산정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건강보험통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1), 「전국 병원 및 약국 현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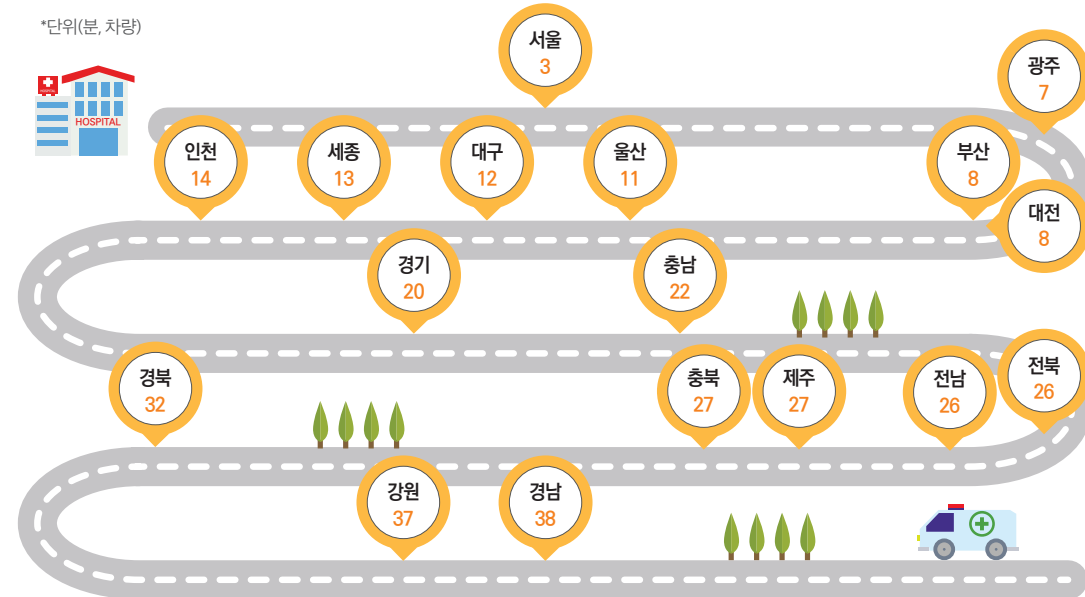
## ○ 의료 접근성 지역 간 격차 뚜렷

시·도별 의료 접근성은 서울 및 광역시(광주, 부산, 대전 등)가 우수하며, 도 지역 및 농촌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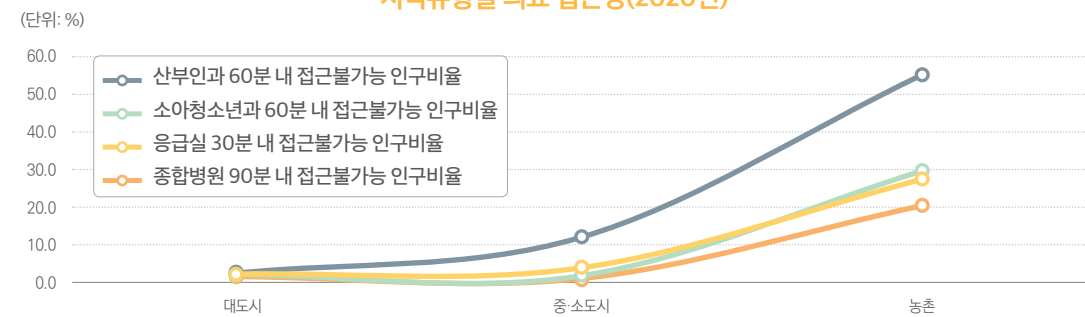
### 시·도별 및 지역유형별 의료 접근성

- 시·도별 의료 접근성 분석 결과 서울(2.85km, 3분), 광주(6.04km, 7분), 부산·대전(6.80km, 8분)의 경우 차량으로 10분 안에 종합병원에 도착 가능하나, 경남(31.54km, 38분), 강원(30.47km, 37분), 경북(26.85km, 32분) 등은 30분 이상 운전해야 도착 가능
- 농촌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산부인과, 응급실 등의 의료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지역유형별 의료 접근성 격차 뚜렷

시·도별 의료 접근성(2020년)



지역유형별 의료 접근성(2020년)



\*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 「국토통계지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와 국립중앙의료원(2021), 「공공보건의료통계집」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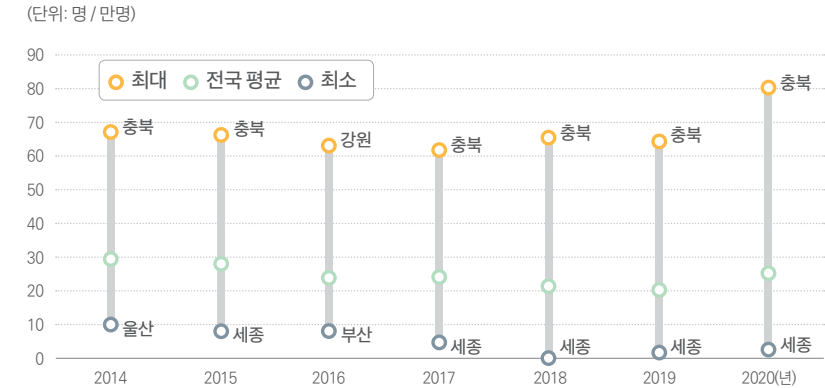
## ○ 응급환자 사망률은 지역 간 격차 극심

응급실 이용인구 만명 당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충북의 경우 만명 당 80명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경우 만명 당 3명으로 가장 낮음

### 응급실 이용인구 만명 당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

- 우리나라의 응급실 이용인구 만명 당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는 25~30명 수준이나, 시·도별 편차가 60~70명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충북(20년 80명)이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가 가장 많고, 강원, 충남 등 지역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세종(20년 3명)이 꾸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실 이용인구 만명 당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2014-2020년)



시·도별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 환자 수 순위(2014, 2017, 2020년)

순위	2014년	2017년	2020년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2	경상북도	강원도	강원도
3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4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5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6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7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8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9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10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11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1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13	경상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14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6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17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 (자료) 보건복지부(2020), 「응급의료통계」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응급실 이용자 현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용어설명 Tip

도착 이전 사망환자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송 중 사망한 환자를 일컫음

### III 지역 간 보육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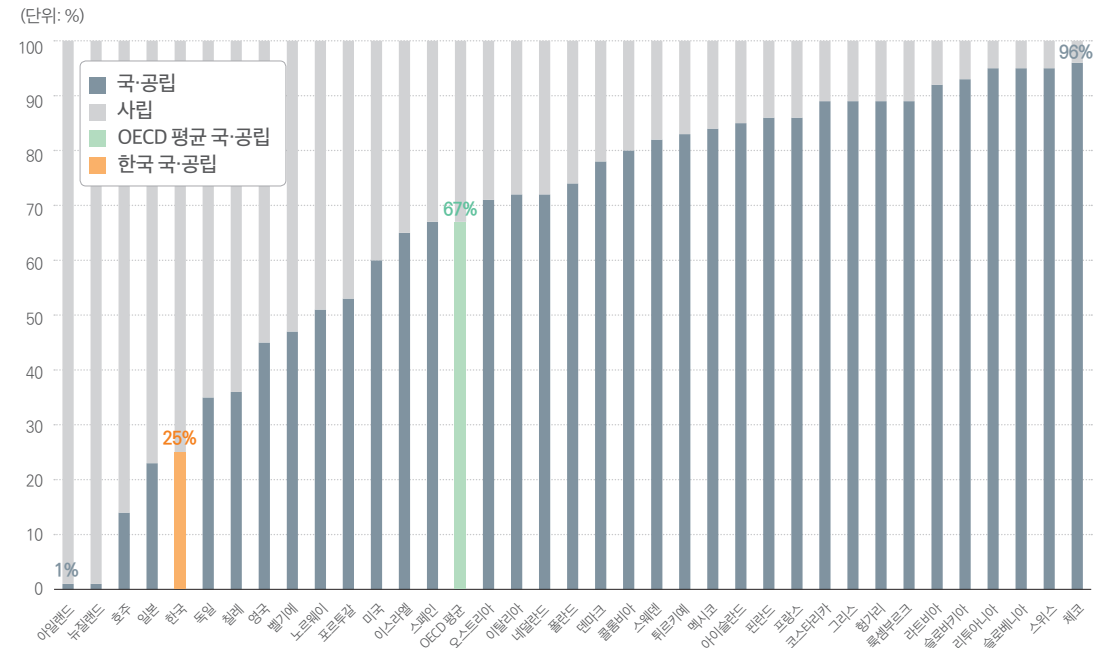
#### ○ 우리나라 국·공립 보육기관 취원 비중은 OECD 평균의 1/3 수준

OECD 회원국 유아의 국·공립 취원 비중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국·공립 비중이 25.0% 수준으로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일본 다음으로 낮음

#### OECD 회원국의 유아의 국·공립 및 사립기관 취원 비중

- OECD 회원국 평균 유아(만 3~5세)의 국·공립 취원 비중은 67.0% 수준이며, 한국은 25.0% 수준에 그쳐 OECD의 약 1/3 수준임
-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구 동구권 국가들이 높은 국·공립 취원 비중을 보이는 반면,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은 국·공립 취원 비중이 낮음

2021년 OECD 회원국의 유아(만3-5세)의 국·공립 및 사립기관 취원 비중



\* (자료) OECD(2021), 「Education at a Glance」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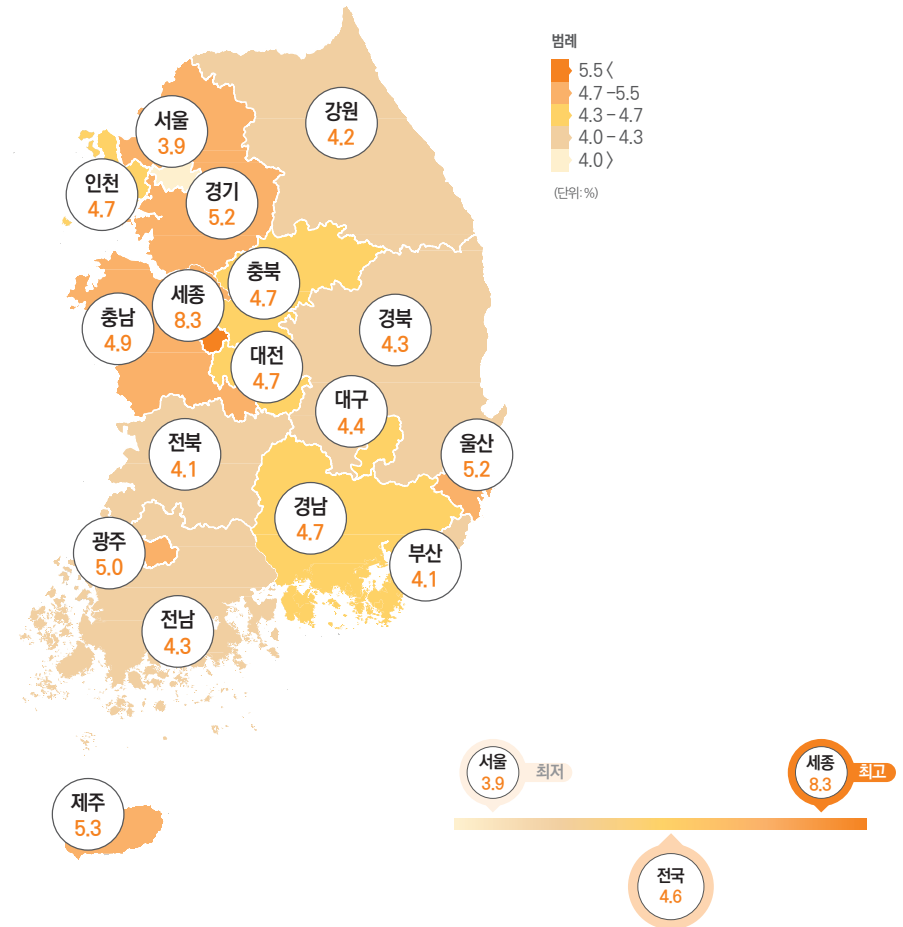
#### ○ 국·공립 보육기관은 증가 추세이나, 지역 간 격차 존재

(영유아 인구비율)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비율은 세종이 가장 높고, 서울이 가장 낮음

#### 시·도별 영유아 인구

- 전국 영유아 인구비율은 4.6%이며, 시·도별로는 세종(8.3%), 제주(5.3%), 경기·울산(5.2%), 광주(5.0%)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서울(3.9%), 부산·전북(4.1%), 강원(4.2%) 등 순으로 영유아 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남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영유아 인구비율(2021년)



\* (주) 영유아 인구의 경우 0-6세 연령별 인구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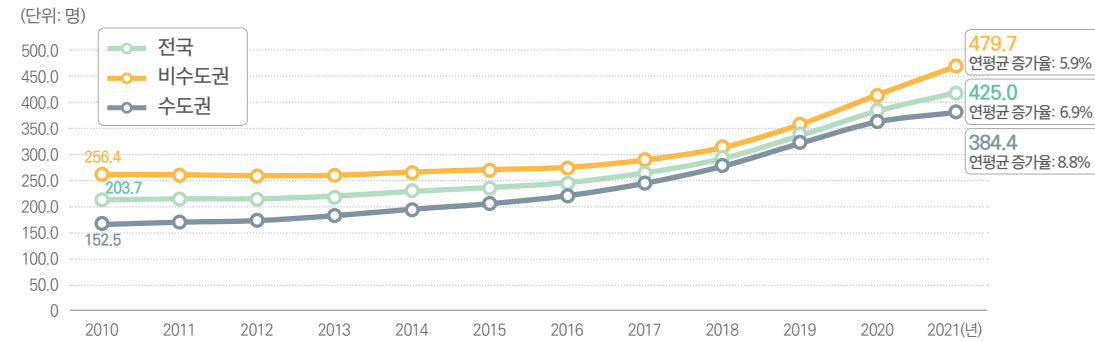
\* (자료) 행정안전부(2021), 「주민등록인구 연령별 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지역별 국·공립 보육기관 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공립 보육기관 연평균 증가율이 6.9%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 증가율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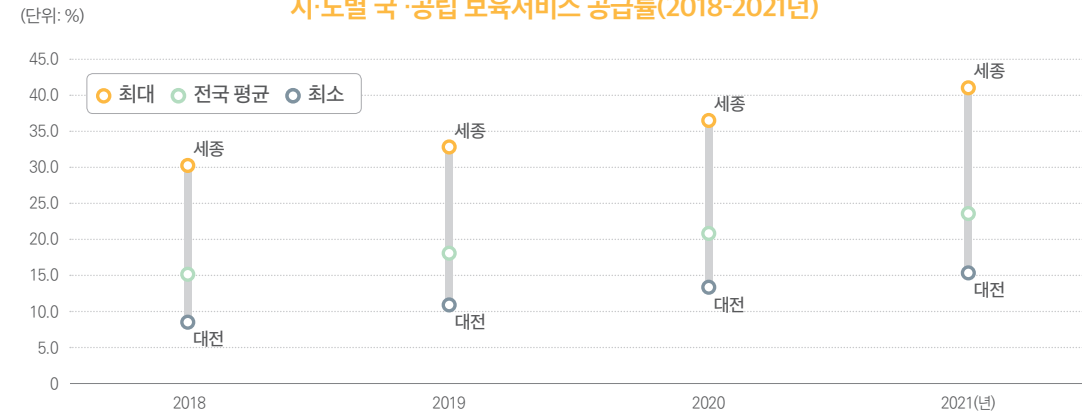
### 지역별 국·공립 보육기관 수

- 영유아 인구 10만명 당 국·공립 보육기관 수는 2010년 203.7명에서 2021년 425.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9%에 달함
- 다만, 2021년에 비수도권(479.7명)이 수도권(384.4명)보다 국·공립 보육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수도권(8.8%)이 비수도권(5.9%)보다 높은 폭으로 증가
- 2018-2021년 국·공립 보육서비스 공급률은 세종이 가장 높고 대전이 가장 낮음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유아 인구 10만명 당 국·공립 보육기관 수(2010-2021년)



시·도별 국·공립 보육서비스 공급률(2018-2021년)



\* (주) 1. 보육서비스 공급률 = 유치원·어린이집 정원의 합 / 영유아 인구 수로 산정  
 2. 유치원 정원의 경우 2018년부터 데이터 존재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8-2021), 「교육통계서비스」와 보건복지부(2010-2021), 「보육통계」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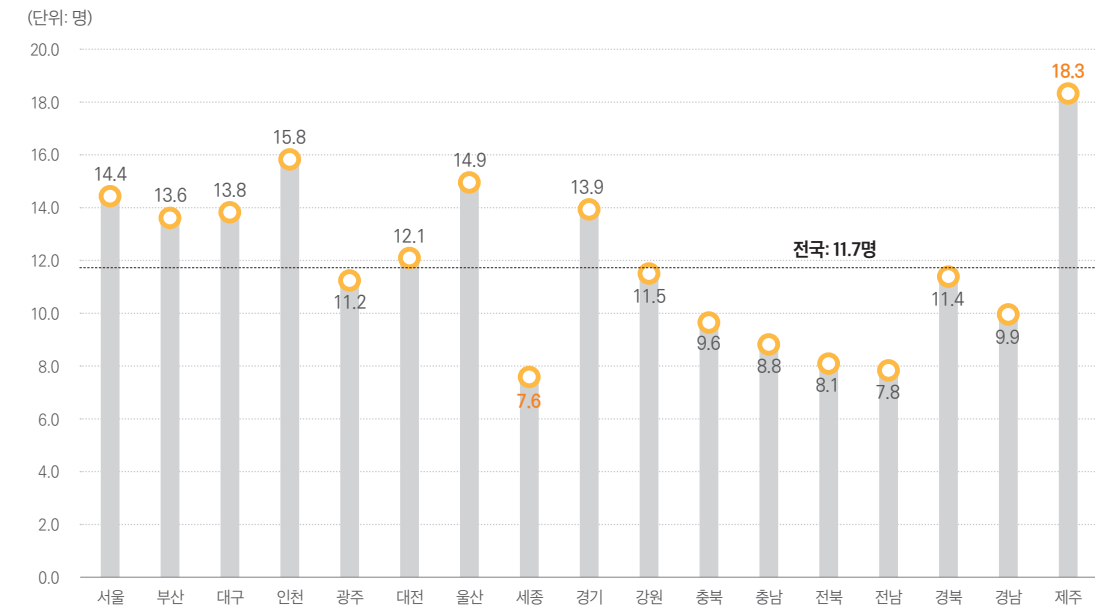
### 교원 1인당 영유아 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와 수도권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영유아 수는 제주와 수도권이 대체로 높고, 비수도권과 도 지역에서 대체로 낮음

### 시·도별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인구 수

- 2021년 기준으로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인구 수는 전국 평균 11.7인이며, 제주(18.3인), 인천(15.8인), 울산(14.9인), 서울(14.4인)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세종(7.6인), 전남(7.8인), 전북(8.1인), 충남(8.8인) 등 순으로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인구 수가 낮게 나타남

시·도별 국·공립 보육기관 교원 1인당 담당 영유아 인구 수(2021년)



\* (주) 영유아 인구는 만3-5세 인구로 산출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1), 「교육통계서비스」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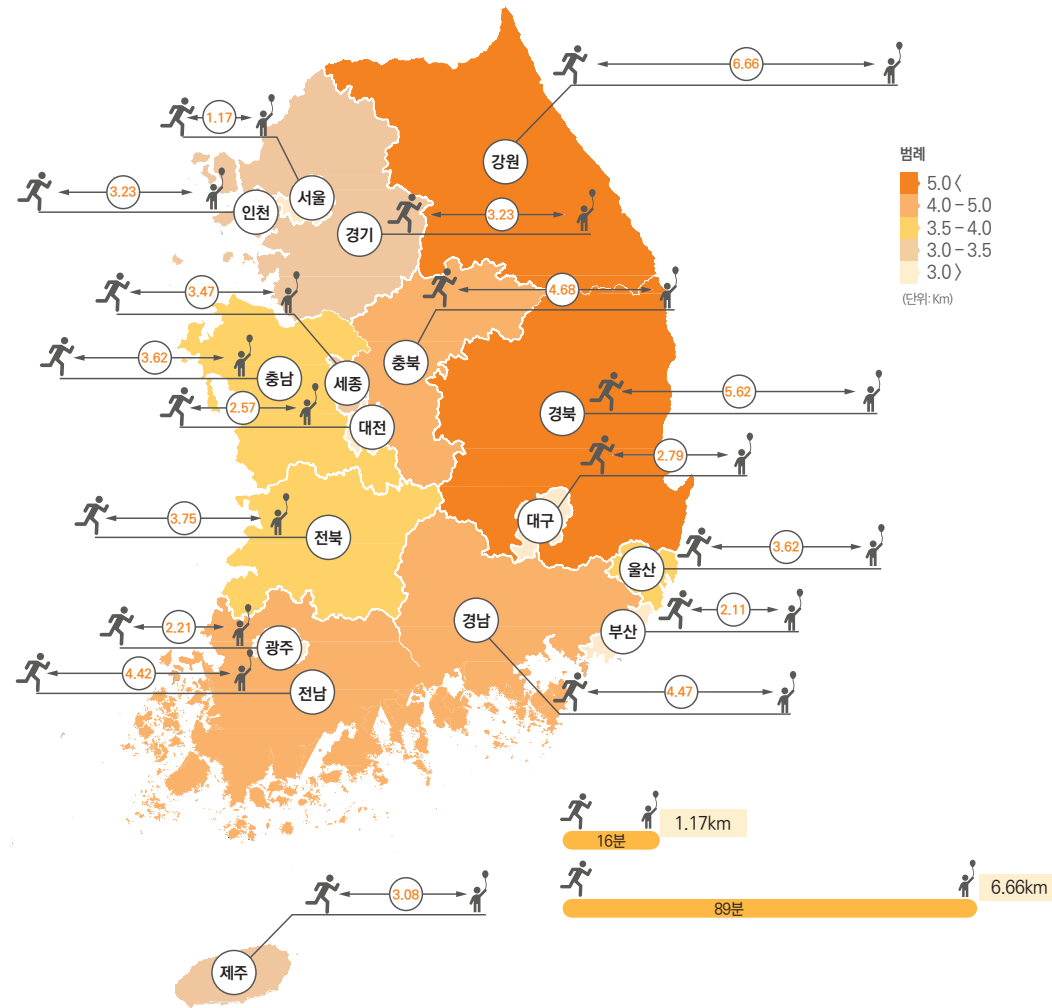
## 보육기관 접근성도 지역 간 격차 뚜렷

(보육기관 접근성) 서울의 경우 보육기관이 평균 1.17km(16분) 떨어져 도보로 20분 내에 접근 가능하여 가장 접근성이 우수하나, 강원은 6.66km(89분)로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임

### 시·도별 보육기관 접근성

- 보육기관 접근성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도 지역에서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는 보육기관 접근성이 서울(1.17km, 16분), 부산(2.11km, 28분), 광주(2.21km, 29분)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강원(6.66km, 89분), 경북(5.62km, 75분), 충북(4.68km, 62분) 등 순으로 낮게 나타나 상당한 격차를 보임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접근성(2020년)



\* (주) 접근성의 경우 500x500 격자 중심점에서 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도로 이동거리로 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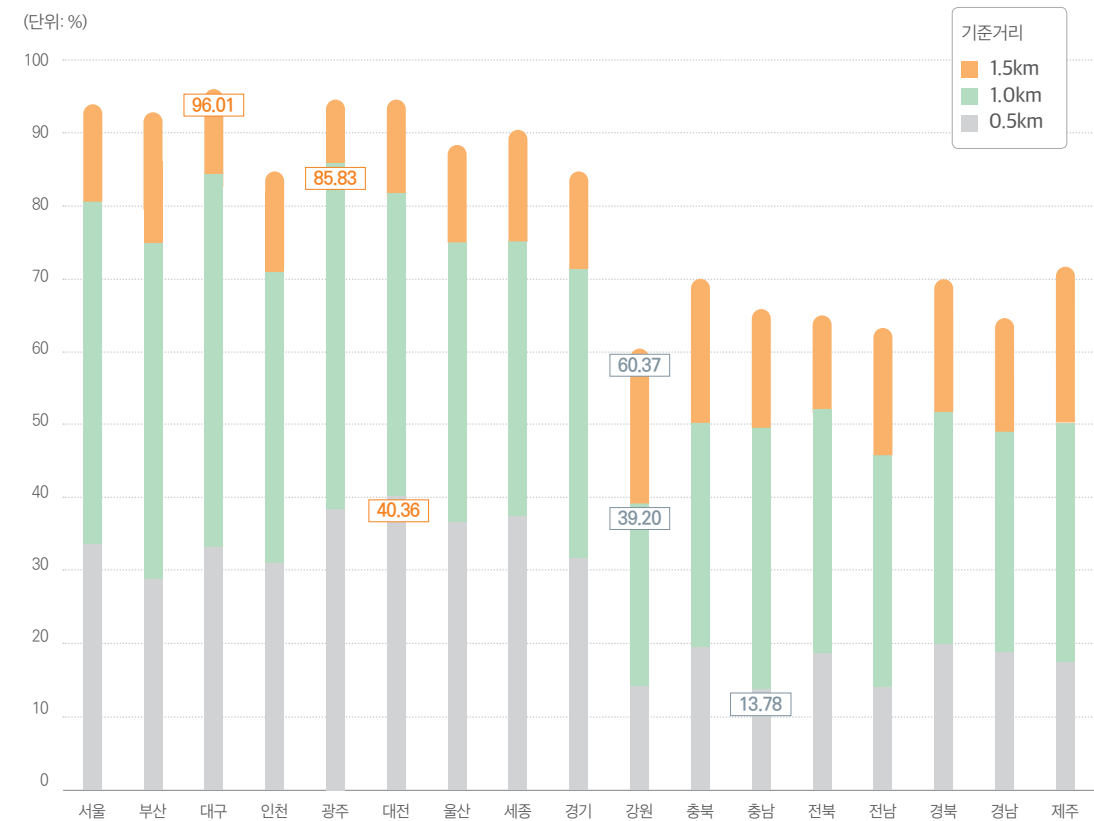
\*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 「국토통계지도 국토지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보육기관 서비스권역) 대도시의 경우 기준거리(0.5, 1.0, 1.5km)가 커질수록 거의 대부분의 인구비율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강원 서비스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수치를 보임

### 시·도별 보육기관 서비스권역

- 0.5km권역 내 영유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40.36%)이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13.78%)임
- 1.0km권역 내 영유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85.83%), 가장 낮은 곳은 강원(39.20%)임
- 1.5km권역 내 영유아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96.01%), 가장 낮은 곳은 강원(60.37%)임

시·도별 보육기관(유치원) 서비스권역 내 영유아 인구비율(2020년)



\* (자료)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2020), 「국토통계지도 국토지표」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부록

## 1. 문화기반시설 수 추이(2014-2021년)

연도	문화기반시설 수(개)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2014	866	752	190	220	229	116
2015	931	809	202	232	229	116
2016	979	826	219	228	228	114
2017	1,011	853	229	232	228	100
2018	1,043	873	251	251	231	100
2019	1,099	881	217	255	231	101
2020	1,137	897	267	256	230	101
2021	1,176	900	271	261	230	10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2.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추이(2014-2021년)

지역 구분	문화기반시설 수(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324	342	356	365	363	399	407	424
부산	78	79	87	97	92	107	109	113
대구	64	66	72	73	63	80	82	84
인천	82	88	97	96	92	104	107	110
광주	50	54	56	55	54	63	65	66
대전	53	54	56	57	51	55	59	58
울산	35	40	39	40	36	43	43	44
세종	8	10	12	13	13	19	20	21
경기	440	481	492	504	484	496	552	554
강원	182	198	206	210	197	215	221	222
충북	119	126	126	126	116	130	133	135
충남	147	149	154	158	142	166	168	167
전북	134	148	148	155	145	158	161	166
전남	173	179	181	191	179	206	212	217
경북	184	193	196	195	172	201	203	212
경남	176	187	190	193	176	207	213	217
제주	124	125	126	125	123	135	133	129
수도권	846	911	945	965	939	999	1,066	1,088
비수도권	1,527	1,608	1,649	1,688	1,559	1,785	1,822	1,85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3. 지역별 관람율 추이

지역구분	관람율(%)					
	2014	2016	2018	2019	2020	2021
대도시	75.3	82.3	85.2	84.1	63.5	39.2
중소도시	73.0	82.2	82.1	84.6	64.0	33.4
농촌지역	57.7	66.1	71.7	71.4	46.5	21.7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4. 한국 기대수명·건강수명 추이

구분	기대수명·건강수명(년)				
	2012	2014	2016	2018	2020
기대수명	80.9	81.8	82.4	82.7	83.5
건강수명	65.7	65.2	64.9	64.4	66.3
격차	15.2	16.6	17.5	18.3	17.2

\* (자료) 통계청(2012-2021), 「생명표」

## 5. 시·도별 인구 10만명 당 의료인력 수 추이(2010-2021년)

지역 구분	의료인력 수(10만명 당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576	617	636	695	726	755	824	849	883	950	987	1,056
부산	496	547	553	598	636	676	731	760	792	859	881	922
대구	494	525	530	603	620	649	695	711	743	843	862	932
인천	324	352	353	378	420	457	507	543	579	630	655	673
광주	565	630	626	653	707	750	797	838	875	953	972	1,000
대전	516	541	551	581	594	627	684	718	748	823	848	887
울산	355	390	389	437	459	478	530	549	556	618	643	676
세종	0	0	199	207	204	187	178	189	194	206	400	423
경기	329	361	360	377	408	423	466	483	500	526	560	584
강원	460	471	469	481	500	531	556	573	593	634	653	683
충북	349	373	371	398	410	441	459	475	497	525	533	549
충남	331	351	354	376	395	412	439	453	461	498	510	574
전북	455	490	486	513	536	569	613	639	673	702	728	761
전남	458	498	496	517	552	582	612	626	659	694	702	732
경북	373	401	401	425	442	457	495	514	528	558	568	588
경남	362	405	414	444	463	491	556	580	603	643	670	693
제주	496	512	484	556	566	581	593	609	626	654	662	694
전국	433	467	471	504	531	556	603	624	648	694	720	756

\* (자료) 보건복지부(2010-2021), 「의료통계」

6. 시·도별 응급실 도착이전 사망환자 수 추이(2014-2020년)

지역 구분	응급실 도착이전 사망자 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응급실 도착 이전 사망자 수	응급실 이용 인구
서울	5,367	1,861,451	4,853	1,733,451	4,780	1,808,261	4,986	1,755,437	3,130	1,814,373	2,936	1,784,885	2,174	1,352,589
부산	836	709,058	859	684,747	564	689,641	609	678,174	349	676,941	439	633,615	362	484,629
대구	731	477,769	583	485,364	438	524,276	353	500,527	278	472,419	171	463,338	139	319,983
인천	1,467	478,559	1,642	472,844	1,154	480,254	1,422	491,365	1,125	492,937	1,066	489,958	1,023	401,632
광주	954	404,611	912	426,760	832	445,608	901	441,236	777	464,109	841	474,991	863	350,159
대전	797	262,908	557	262,085	489	283,928	386	276,153	363	278,072	237	270,043	195	211,341
울산	261	278,367	276	296,289	282	283,299	213	279,339	192	278,682	191	252,147	138	200,757
세종	29	27,368	23	27,387	25	24,983	15	32,121	0	18,297	2	22,719	6	22,010
경기	6,572	2,214,734	6,285	2,171,549	5,394	2,308,612	4,556	2,236,742	4,684	2,321,299	3,959	2,228,460	2,723	1,689,890
강원	1,695	394,392	2,370	389,100	2,479	392,700	2,357	398,599	2,386	410,533	2,145	402,174	2,445	321,853
충북	2,131	317,537	2,178	329,638	1,830	334,479	1,988	321,485	2,147	329,727	2,047	317,856	2,078	258,906
충남	1,776	443,209	1,917	438,576	1,330	443,097	1,404	426,268	1,433	438,583	1,446	410,167	2,105	320,599
전북	1,593	372,034	1,445	391,522	1,302	411,674	1,104	409,813	1,142	433,585	980	393,923	1,346	359,109
전남	1,813	503,645	1,665	553,906	1,678	559,612	1,548	562,913	1,509	548,973	1,479	530,424	1,945	443,199
경북	2,723	558,362	2,427	549,992	2,182	564,460	2,448	551,951	2,281	570,101	2,052	546,706	1,961	422,101
경남	1,659	947,631	1,407	956,213	1,068	1,013,023	802	879,240	748	874,803	676	837,905	423	636,293
제주	428	168,348	295	174,562	517	184,887	405	184,672	542	185,736	415	179,049	292	113,310
합계	30,832	10,419,983	29,694	10,343,985	26,344	10,752,794	25,497	10,426,035	23,086	10,609,170	21,082	10,238,360	20,218	7,908,360

\* (자료) 보건복지부(2015-2021), 「응급의료통계」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응급실 이용자 현황」

7. 시·도별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 추이(2014-2020년)

지역 구분	응급실 이용인구 1만명 당 도착 전 사망자 수(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	29	28	26	28	17	16	16	
부산	12	13	8	9	5	7	7	
대구	15	12	8	7	6	4	4	
인천	31	35	24	29	23	22	25	
광주	24	21	19	20	17	18	25	
대전	30	21	17	14	13	9	9	
울산	9	9	10	8	7	8	7	
세종	11	8	10	5	0	1	3	
경기	30	29	23	20	20	18	16	
강원	43	61	63	59	58	53	76	
충북	67	66	55	62	65	64	80	
충남	40	44	30	33	33	35	66	
전북	43	37	32	27	26	25	37	
전남	36	30	30	27	27	28	44	
경북	49	44	39	44	40	38	46	
경남	18	15	11	9	9	8	7	
제주	25	17	28	22	29	23	26	
전국	30	29	24	24	22	21	26	

\* (자료) 보건복지부(2015-2021), 「응급의료통계」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응급실 이용자 현황」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발행일** 2022. 7. 29.  
**기획** 국토연구원  
**발행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발행인** 강현수  
**연구진** 하수정, 김은란, 이차희, 이종표, 심혜민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www.krihs.re.kr  
044) 960-0114 / FAX 044) 211-4760  
**편집제작**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SSN** 2733-5968